

출품작에 대한 설명

내작업은 누군가 똑같이 만들고 싶다면 쉽게 똑같이 만들수있다. 을지로 안료상에에서 메탈릭 파우더란걸 사다가 바인더에 섞어서 바탕색을 만들어 칠하고 화방에서 모델링 콤파운드란걸 사다가 일종의 공판 기법으로 “땡땡이”를 그위에 찍고 땡땡이위에 은색 혹은 금색 아크릴 물감을 바르면 되는 것이다.

다른사람이 내 작업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용한다.

(이러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은) “비권위(반권위,혹은 대항권위와는 다른)의 얼굴을 가지고있다 이 비권위의 신호가 갖는 가치란 고유한 출처나 메시지의 근원지로서의 작가의 어떤 장엄한 시도와 등가이다. 그것은 문화의 차원에서는 “누구나에 의해 소비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민주적이다”땡땡이”가 그자체로 의미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작가-신(神)에 대립되는 “누구나”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작품의 장점은 매우 장식적이어서 한번 사다 걸어 놓아봄직하다는 데있다. 내가 이 기금 마련전에 선듯 이작품을 고른 이유는 팔릴만한 작품이기 때문이다.